

김종 '스포츠산업 예찬론' 알고보니 '최순실 멍석깔기'

스포츠산업 강조하며 관련 기관 대폭 몰같이 K스포츠재단 등 이권사업 펼 수 있게 도운 꼴



김종 전 차관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 체육계가 지 뿌리 채 흔들 수 있었던 막후에는 평소 스포츠산업 예찬론을 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있어 가능했다.

(본보 11월 7일자 13면)

최순실씨가 주요 국정현안에 개입하고 각종 집회를 휘두른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스포츠경영학 박사로서 차관 부임 전부터 국내에서는 이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였다. 2007년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와 글로벌스포츠산업대학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그의 후학들이 관련 분야에 두루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0월 차관직에 오른 뒤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답게 스포츠산업에 대해 공을 들였다.

문체부에 스포츠산업과를 만들고 인원을 보강했다. 침체된 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면서 평소 스포츠산업은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차관 부임 후 마음껏 실행에 옮겼다.

문제는 문체부 내부는 물론 관련 기관이나 협회까지도 자기 사람들로 채워 나갔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지인이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인사 청탁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이사장 몸담았던 한국스포츠산업협회는 상당수가 그의 인맥이다. 이 협회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연중 행사로 잡페어를 연다.

지난 7월에는 스포츠토토 주관업체인 케이토토에서 협회에 1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문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의혹 제기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현 시국에서 의혹들도 다시 들춰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을 축소시키기도 했다. 2007년 정부가 설립한



검찰에 나서는 최순실씨.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지난해 해체 수순을 밟고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로 편입됐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김 전 차관은 정부기구 통폐합이란 구실을 들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창립한 K스포츠재단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분야가 겹친다.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씨가 창립을 주도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거둬들이는 등 운영에도 깊

이 관여했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후원금은 최순실씨의 개인 주머니로 빼돌려졌다는 의혹을 사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은 부임 후 시행한 각종 인사 조치와 체육분야 통폐합 등을 통해 체육계를 완전히 장악했다. 스포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관을 키웠다. 결국 이는 최순실씨가 이권사업을 펴는데 멍석을 깔아준 셈이 됐다.

한 체육계 인사는 "돈이 될 만한 곳에는 자기 사람을 앉혔다. 그 분야(스포츠산업)는 상당수가 김종 전 차관 인맥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최순실이 관련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발걸음을 한 것"이라고 혀를 찼다.

지금에 와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김 전 차관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을 정책들도 최순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틀을 무시한 채 불도저식 정책 추진은 체육계를 위락시켜하려는 의도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다', '만난 적도 없다'는 말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최근에는 최순실씨와 김 전 차관이 조용히 만남을 가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출국 금지 조치된 상황에서 검찰 소환 조사가 시간 문제다. /뉴스

이광국 전북현대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신임 대표이사에 이광국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선임됐다.

전북은 10일 이광국 부사장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전북현대모터스의 공식 대표이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광국 신임 대표이사는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과 함께 전북현대 축구단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게 된다.

그는 국내업무 복귀 전, 현대차 외산팀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10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해외 근무로 인한 글로벌적인 감각과 리더십으로 전북현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MLB, SK 김광현·삼성 차우찬에 '눈독'

미국 메이저리그(MLB) 구단들이 올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된 김광현(28·SK 와이번스)과 차우찬(29·삼성 라이온즈)에 관심을 드러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8일 MLB 사무국으로부터 김광현과 차우찬에 대한 신분조회를 요청받았다"며 "두 선수가 현재 FA 신분이며 11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 체결이 가능한 신분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 FA 자격 선수를 공시한 KBO는 이날 오전 FA 신청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연히 차우찬과 김광현 모두 FA를 신청했다.

신분조회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김광현, 차우찬에게 관심을 보이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있다는 뜻이다. 신분조회를 요청한 구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김민근 기자



김건모, 데뷔 25주년 기념 앨범 발표

'원조 밀리언셀러'로 통하는 국민가수 김건모가 5년만에 가요계로 컴백한다.

소속사 건음기획과 음반유통사 뮤직엔유에 따르면 김건모는 데뷔 25주년을 기념한 새 앨범 '50'을 19일 공개한다. 2011년 정규 13집 '자서전' 이후 5년 만이다.

1995년 정규 3집 '잘못된 만남'으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김건모는 '자서전'을 발매한 뒤 드라마 OST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MBC TV '나는 가수다'와 SBS TV '판타스틱 듀오' 등 노래 대결 프로그램에서 세심 실력을 입증했다.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유머 감각을 뽐내며 인기도 누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신곡이 최초 공개된 후, '자식들을 키우고 난 노부부의 삶'을 담은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주목 받았다.

뮤직엔유 관계자는 "김건모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줄 다양한 시도와 실력있는 아티스트들과 작업으로 색다른 민중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노래

'비선 실세' 최순실로 인해 상처 받은 국민을 위해 대중음악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

이승환의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따르면 오는 11일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이승환·이효리·전인권이 함께 부른 '길가에 버려지다'를 무료로 공개한다.

작곡가 이규호가 작사·작곡하고 이규호와 이승환이 공동 프로듀싱한 작품이다. 이와 함께 다른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마법의 성'을 만든 '더클래식'의 박용준, '들국화'의 베이스리스트 민재현, 이승

오늘 포털사이트 '다음' 통해 이승환·이효리·전인권 참여 '길가에 버려지다' 무료 공개

환 밴드의 최기용, 옥수사건관의 노경보, 전제덕 등이 참여했다.

드림팩토리는 "칼 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버려진 서러운 세월을 사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곡"이라며 "국가 혹은 집단과 개인 사이의 질문에서 시작된 노래로 현

재의 갈등과 방향을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한다"고 소개했다. "마침내 처연한 슬픔을 이겨낼 희망을 그린다. 참여한 음악인들 모두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드림팩토리 스튜디오에서 기본 반주 녹음을 마쳤고 각자의 작업실에서 보내온 결과물들을 취합해 믹스, 마스터링,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거쳤다.

특히, 최근 대외활동을 하지 않던 이효리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그녀는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행동과 발언으로 주목 받았다. 그녀의 남편인 기타리스트

트 이상순도 함께 했다.

드림팩토리는 "이효리는 곡을 받은 후 30분만에 자신의 색깔로 해석한 노래를 보내와 스태프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곡은 다음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뮤직비디오 등 2차 저작물의 제작, 배포도 가능하다. 오는 18일에는 30여 개 팀이 참여한 '길가에 버려지다' 두 번째 버전이 공개된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